

이창래의 『Native Speaker』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와 민족 정체성 연구

- 미국 다문화 사회에서의 자기 분열과 정체성 -

장민희

(경희대학교)

《목 차》

1. 들어가기
2. 다문화의 도시 뉴욕에서의 ‘이방인’ 과 ‘원어민’
 - 2.1. 이방인 아버지의 ‘이중 소외’ 와 ‘자기 분열’
 - 2.2. 원어민 헨리의 ‘자기 부정’ 과 ‘언어 자의식’
 - 2.3. ‘현실 직시’ 와 ‘자기 인정’ 으로의 ‘탈식민화’
3. 결론

<Abstract>

Chang, min-hee. 2021. 1. 17. **A Study on the Diaspora and Ethnic Identity in Lee Chang-rae's "Native Speaker". Self-Division and Identity in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United States.**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7, 125-149. Immigrants truly form their own identity by improving upon stereotypical norms Henry, the protagonist of "Native Speaker", is a native English speaker. However, he impersonates White people. Personifying the average White American is based off of cultural self-denial. This is why Henry's identity is unstable. For that reason, he's unable to reach his goal. Through this process,

Henry realizes the importance of Korean culture. Henry, Who ran from the fact he was Korean-American, recovers his identity by admitting his Korean heritage. For immigrants living as diaspora, establishing the means for them to understand their ethnic identity is important.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thnic identity. (Kyung Hee University)

[Key words] identity, Diaspora, ego, Native, home, ethnic minority, environment, bilingual,

1. 들어가기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라는 용어는 캐나다의 ‘이중 언어와 이중문화 위원회’ 에서 1965년 시작되어 1971년에 다양한 문화의 수용과 유지라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공식적 용어로 사용되기 에 이른다. 이렇게 시작된 ‘다문화주의’ 용어는 1990년대 미국 정부와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며 학술계에서는 미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다. 사실 미국은 수백 년 동안 다 민족 다인종의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20세기 초반까지도 백인우월주의를 내세워 원주민인 인디언을 비롯 하여 유색인종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며 미국은 백인의 나라라는 백인 정체성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대전에 참전해야 할 미국인이 필요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미국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열정의 문제이지, 인종이나 조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국이 기초해 있고 미국이 운영되어가는 원리이기도 하다” 라고 공표(公表)한다. 미국의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세계 2차 대전을 계기로 이렇게 변화의 바람이 일었고 인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¹⁾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세계 2차 대전을 계기로 변화를 가져왔지만, 미국은 여전히 백인우월주의가 작동하는 나라이며 다문화 사회로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떠할까?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단일민족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농촌 노총각들의 결혼문제를 국제결혼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입문을 열었고 이후 매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며 현재 2021년은 미국이 그러하였듯이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부모는 한국의 언어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자녀 양육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녀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²⁾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미 미국의 다문화 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던 문제점들이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이민자들을 사회의 주변인으로 ‘타자’의 자리에 앉히려 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의 단일민족의 자부심으로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을 대한민국에서 ‘주체’의 자리가 아닌 ‘타자’의 자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믿고 포용하는” 것이라기보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인정해야 한다고 글레이저는 말한다.³⁾ 결국, 모든 것은 변화하며 함께 바뀌어 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글레이저의 말처럼 우리는 변화하여 현재 지구촌 시대인 다문화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다문화 시대에 동참한 우리는 그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여 밝은 대한민국의 일원이 될

1) 최재인(2009), 미국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배경, <호모미그란스-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제1호, 이주사학회, 75~78쪽 참조.

2) 박점자(2015), 다문화 가정의 가족 기능이 다문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5권 6호, 한국콘텐츠학회, 248쪽.

3) 네이션 글레이저, 서종남·최현미 옮김(2009),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미래를소유한사람들. 57쪽.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여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들과 직면해 온 미국의 경험을 살펴봄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재미교포 이창래의 자전적 소설 『영원한 이방인』⁴⁾은 이에 적합한 작품으로 미국에서 한국 이민자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점과 주류 사회로의 동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틈새에서 겪는 정체성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영원한 이방인』(“Native Speaker”)⁵⁾의 선행연구자로 구은숙⁶⁾은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스파이’라는 헨리의 직업을 통해 이민 후세대가 갖는 불안한 정체성을 살폈고, 고부웅⁷⁾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비어있는 기표의 정체성”을 헨리의 ‘스파이’라는 직업의 다의적 성격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김진경은⁸⁾ 언어에 대하여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헨리를 통해 소수인종의 ‘언어’의 문제를 다루었고, 장민희⁹⁾는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된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원한 이방인』은 여성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존재 방식을 드러내는 작품이라며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서발턴’의 삶과 그들의 존재 방식을 고찰하여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국 사회에서 피해자가 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서발턴’이 재현되는 양상을 살펴 여성들이 어떻게 하위주체에서 주체로 그들의 자리를 새롭게 배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파악하며 여성의 정체성을 규명하였다. 그 외에 ‘정체성’¹⁰⁾과 ‘언

4) 이창래, 정영목 옮김(2015), 영원한 이방인, 알에이치코리야.

5) Lee, Chang-Rae(1995), *Native Speaker*, New York: Riverhead.

6) 구은숙(2000), 인간 옆보기: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인생 스파이로서의 작가, <현대영미소설> 제1권 1호,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47~63쪽.

7) 고부웅(2002), 이창래의 원어민 - 비어있는 기표의 정체성, <영어영문학> 제48권 3호, 한국영어영문학학회. 619~638쪽.

8) 김진경(2019), 언어의 도시와 이방인들: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연구, <미국소설> 26권 3호, 미국소설학회. 5~26쪽.

9) 장민희(2002),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에 나타난 ‘서발턴’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28호, 국제한인문학학회. 39~70쪽.

10) 서은경(2017),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민자의 자기

어' 11)의 문제를 다룬 연구와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언어와 무의식의 관계를¹²⁾ 다룬 연구가 있다.

탈식민주의적 담론에서 문화적 제국주의의 양상을 “문화적 혼종성”으로 보는 호미 바바(Homi Bahbah)는 식민주의 문화의 양가성을 강조하며 인종적 차이에 주목한다. 바바는 차이가 발생하는 공간을 혼종성 공간으로 파악하고 이 공간을 ‘이중화와 분열’이 발생하는 공간이라 한다. 미국 사회 내에서는 주류층과 타자로의 이민자의 대립 관계 속에서 이민자들은 주류에 합류하고자 흉내 내기를 한다. 하지만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한계를 보이는데 바바는 이 한계에 대해 ‘틈새적 차이와 잡종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민자의 백인 흉내 내기에 주목한다.¹³⁾ 이민자들은 흉내 내기에서 차이들을 만들어 내면서 정체성의 균열을 일으키는데 『영원한 이방인』의 주인공 헨리는 미국에서 태어난 원어민이자 동양계

배반의 삶 - 이창래 소설 네이티브스피커를 통해서 본 'Korean-American'의 생존방식 탐구, <우리어문연구> 제58권, 우리어문학회. 55~71쪽; 박선양(2017), 경계의 디아스포라, 사이공간을 주체화하다-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Native Speaker)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1권 2호, 전남대학교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 125~160쪽; 박성원(2014),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분석에 나타난 언어와 정체성의 결속성 연구, <이중언어학> 54집, 이중언어학회. 123~156쪽.

11) 진영의(2017),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에 나타난 혼종적 욕망과 언어권력, <현대소설연구> 67권, 한국현대소설학회. 121~147쪽; 한영숙(2016), Native Speaker: 정체성과 언어의 문제, <인문학연구> 20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75~294쪽; 박수정(2002), 누가 네이티브 스피커인가-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인종과 언어의 관계, <효원영어영문학>, 제22집. 111~132쪽.

12) 정진선(2004), 언어와 문화적 무의식: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재현(2006),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 고찰: 존 오카다의 노-노 보이와 이창래의 원어민 속에서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3) 호미바바, 나병철 옮김(2012),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15~54쪽 참조.

이민 2세의 후손으로 ‘타자’로 백인 흉내 내기를 한다. 하지만 백인 흉내 내기는 자기 부정을 기반으로 출발하였기에 불안한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목표 대상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헨리는 자신의 뿌리(한국문화)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흠집이라 생각하고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고유성을 인정함으로 혼성성(混成性)을 받아들임으로 정체성을 회복한다.

결과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자기 인정(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탈식민화’로의 지름길이다. 이에 본고는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에 재현되는 이민자들의 피해 양상을 살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구명하고 다문화주의의 문제점 시사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유추해 보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다문화의 도시 뉴욕에서의 ‘이방인’과 ‘원어민’

2.1. 이방인 아버지의 ‘이중 소외’와 ‘자기 분열’

번스타인(Bernstein)은 자녀의 언어와 인지 발달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언어 능력을 거론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의적인 것이라 주장한다.¹⁴⁾ 이 정의적인 것은 부모의 성격, 가치관, 생활 태도 등이 반영, 자녀 양육 태도와 자녀 양육 행동에서 표현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녀를 훈육할 때 부모가 인상을 찌푸린다가나 아주 짧은 문장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자녀는 그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사태에 대하여 적절히 취할 행동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녀의 언어발

14) Bernstein, B. A(1971). Class, codes, and control (vol. 1): *Theoretical studies towards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32~136쪽 참조.

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자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온화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훈육을 한다면 자녀의 언어발달을 촉진 시킨다. 즉 부모의 언어는 자녀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들이 대처해야 할 환경에 대한 태도를 비롯하여 자아개념, 인간관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민 1세대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포함하여 언어의 문제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로 방향 상실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¹⁵⁾ 한국에서 성인기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온 헨리 아버지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미국으로 왔지만, 아버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류는 영어가 서툰 아버지를 받아 주기를 거부하고 ‘소외’ 시킨다. 백인으로부터 소외를 당한 흑인은 자신에게조차 소외가 되는 ‘이중의 소외’를 겪는다고 프란츠 파농은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이중의 소외를 경험한 흑인은 같은 동족을 미개하다고 비난하고 하얀 가면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은 열등 콤플렉스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¹⁶⁾ 헨리의 아버지는 어떠할까?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아버지는 집에 들어와서 침대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잔인하게 우리에게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내가 운 좋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폭언을 퍼부었으며, 이 땅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위험한지, 자신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 아버지 개인이 쌓은 지식을 우리에게 되풀이해 전파했다.¹⁷⁾

15) Shin, H. S., Han, H. R., & Kim (2007), M. T.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st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A structured interview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4, 415~426쪽. 참조.

16) Frantz Fanon(1986), *Black Skin, White Masks*, Charles Lam Markmann, trans, London: Phuto press, 148쪽.

17) 이창래, 앞의 책, 210쪽. 이하에서는 본문에 쪽수를 숫자로 표기.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웃기는 사람’ (86)으로 그의 본성은 맑고 긍정적이다(87). 어린 헨리에게 다정한 아버지이자(124), 어머니에게 “오래된 농담이나 한국어 말장난” (58)을 걸어 웃음을 선사하는 따뜻한 남편이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아버지는 헨리와 어머니를 향해 잔인하게 ‘폭언’ 을 퍼붓는다. 아버지가 헨리와 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부어도 헨리와 어머니는 아버지와 논쟁할 수 없다. 아버지는 자신과의 ‘논쟁’ 이나 ‘질문’ , ‘다툼’ 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22). 그렇다면 아버지가 어머니와 언쟁을 벌일 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아버지가 입을 열었는데, 영어가 나왔다. 가끔 아버지는 거짓말을 감추고 싶거나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면 영어로 말을 했다. 어머니와 말 다툼을 할 때도 중간에 갑자기 영어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마치 아버지가 깨끗한 주먹 싸움에서 갑자기 칼날이 튀어나오는 칼을 꺼내 든 것처럼 “노, 노!” 하고 애원하곤 했다. 한번은 가게에서 어떤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거리의 욕설을 끔찍하게 내뱉으며 어머니를 호되게 나무라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마이 핫 마마 섯 애스타이트 캅 서카” 니 “슬랜트-아이 스피크-앤-스펜 마다-피카” 니 하는 소리를 질러댔는데, 틀림없이 가게에 온 손님들한테서 주위들었을 것이다(105).

헨리의 어머니는 영어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런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서툰 영어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무기’ 로 사용된다. 아버지의 영어가 서툴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향해 가해지는 아버지의 ‘언어폭력’ ,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 ‘거리의 끔찍한 욕설’ 들을 퍼붓는다. 아마도 어머니가 이러한 말들을 알아들었다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욕설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뱉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러한 폭행에도 ‘노, 노’ 이외 다른 말로 대항하지 못하는 어머니, 이를 지켜보는 헨리는 어머니를 향한 정당하지

못한 아버지의 끔찍한 행동에 아버지를 냉소한다.

헨리와 어머니에게 폭력적인 아버지는 백인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이 된다.

오래전 클레이라는 이름의 나보다 나이 많은 아이가 내 장난감 권총을 빼앗아 갔을 때의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떠듬거리리는 정중한 영어로 클레이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던 모습, 그리고 그 집 아들이 나의 소심함과 오해를 악용한 일을 용서해 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내 아들은 친구들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설명했다. 여자는 아버지가 하는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클레이는 여자 뒤에서 싱긋 웃으며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내 장난감 권총을 일단 건네주었다(163).

아들 헨리가 당한 부당한 일에도 백인 앞에서 예의를 차리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는가 하면 헨리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들 헨리의 ‘소심함과 오해’를 ‘용서’해 달라는 아버지, 헨리의 장난감 권총을 빼앗아 간 클레이와 그의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항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들의 모습이라면 헨리의 아버지는 더듬거리리는 ‘정중한 영어’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며 클레이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한다. 헨리는 아버지의 이와 같은 행동에서 백인 앞에서 ‘앵터리 영어로’의 ‘무기력한 아버지’를 직면한다.

파농은 ‘자기 분열’을 일으키는 흑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은 부정하되 백인이 되기 위해 하얀 가면을 쓰고 같은 동족에게 자신이 백인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¹⁸⁾ 다음 인용문에서 아버지의 태도를 관찰하여 보자.

나로서는 놀랄 일이었다. 아버지는 릴리아에게 잘해 주었다. 아버지 가게 가운데 한 곳에서 만날 때는 릴리아를 위해 늘 갖가지 먹을

18) Frantz Fanon(1986). *Black Skin, White Masks*, 8쪽.

것이 든 바구니를 준비해 놓았다. 가게 선반에서 꺼낸 자질구레한 것들, 다크 초콜릿 바, 이국적인 열대 과일, 티슈로 싸 놓은 비스코토, 아버지는 늘 처음 온 것처럼 가게 구경을 시켜주었고, 대부분 한국인들인 주간 지배인과 직원들에게 그녀를 소개하면서 영어로 자랑스럽게 딸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가능할 때면 언제나 릴리아 바로 옆에 서려고 했으며, 그럴때면 그녀가 키가 아주 크고 몸이 쪽 뺨었다며 놀라곤 했다. 꼭 튼튼한 망아지 같구나. 아버지는 감탄하며 한국어로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그녀를 살짝 끌어안고 나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그녀와 아버지는 허물없이 웃고 농담을 했다(97).

백인 앞에서 폭력의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이제 친절한 동양인이 되어 백인 주체인 릴리아에게 가게를 구경시켜주고 갖가지 먹을 것을 챙겨준다. 같은 동족인 가게 직원들에게 릴리아를 자신의 ‘딸’ 이라고 소개하고 그녀를 끌어안고 농담을 하며 환한 웃음을 보인다. 이미 오래전, 헨리의 기억 속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아버지의 다정하고 환한 모습, 헨리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놀랍고 낯설 뿐이다.

아버지는 백인으로부터 소외된 자신과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이중 소외를 겪으며 ‘자기 분열’ 에 이르러 ‘열등 콤플렉스’ 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언어 폭언과 침묵의 폭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주체로 표상되는 백인 앞에 서면 모범적인 동양인으로 확연히 달라지는 아버지의 이중적인 행동은 헨리로 하여 아버지를 냉소하게 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헨리의 아버지 부정(한국인의 정체성)은 곧 자신의 부정(뿌리)이다. 아버지로 인하여 자아 상실에 이른 헨리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의 원어민인 동시에 비 원어민(언어의 이방인)으로 타인 앞에서 자신을 당당히 표현할 수 없는 자, 즉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을 상실한 자가 된다.

2.2. 원어민 헨리의 ‘자기 부정’ 과 ‘언어 자의식’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가정이라는 환경,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최초의 경험 대상으로 자녀는 부모의 환경에 적응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며 점차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된다.¹⁹⁾ 올바른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로 확고한 자아 개념과 정체성을 소유하게 된 자녀는 학교 적응도 잘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자녀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면 낮은 자존감과 더불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한다.²⁰⁾ 헨리 아버지는 자신이 미국 사회에서 경험한 혼란을 직접 헨리에게 전가하여 헨리로 아버지를 부정하게 하고 아버지의 부정은 자기의 부정으로 이어져 올바른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그 결과 학교에서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된다.

아이들은 나를 ‘공기 돌입’ 이라고 부르곤 했다. 내 묶인 혀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느라 비틀리는 바람에 잡음이 뒤섞인 듯한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야, 중국애.” 나이든 흑인 아이들은 칠판 건너편에서 나에게 고함을 지르곤 했다. “거기서 뭐하냐, 연습하냐?”

물론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아침에 뒤죽박죽이 되었던 모든 단어와 소리를 혼자 소곤거리면서, 늘 엷은 푸른색 카디건을 입고 오는 여자애라면 어떻게 말을 할지 떠올려 보곤 했다.

“그리하여 파리들이 우리의 두려움 없는 밤의 울썩미를 더럽힌다.” 그 애라면 그렇게 말할 것이다. 입술에서 단어들 이 정밀하게 형성된다. 그애는 머리를 들고, 목을 꼳꼳하게 펴고, 눈은 선생님한테 고정시키고 있다. 엘리스애클레스, 나는 그 애의 키와 아름다움과 살갗의

19) 최상진(2000),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참조.

20) 김경란(2006),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 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 논문; 박홍순(2007), *다문화와 새로운 정체성: 포스트콜로니얼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서울:한울 아카데미, 111~134쪽. 참조.

양과 같은 광택을 사모하고 동시에 경멸했다. 나는 그 애가 그애의 부모와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호리호리하고, 창백하고, 입술이 없었다. 또 그 애가 부모에게 말을 하면 부모도 그 애가 우리에게 군림할 때 보여주는 것과 같은, 소 울음처럼 느리고 고른 박자에 실린 말, 권태와 우울감이 담긴 말로 대답을 한다는 것도 알았다(350).

헨리의 아버지는 가정에서 ‘침묵’을 강요하였고 ‘발화’에 있어서는 오직 아버지만이 주체가 되어 발화하였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발화’는 ‘폭언’이었다. 아버지는 언어폭력으로 헨리의 발화를 억압하면서도 ‘영어’로 말을 할 때는 헨리에게 고상하고 과장된 영어로 말하기를 강요한다(91). 아버지의 이러한 양육 태도는 헨리로 하여 언어의 부담을 가져다주어 공교육이 시작되자 문제가 발생한다. 헨리가 ‘공기 돌입’을 가진 아이로 백인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된 이유는 첫 번째, 아버지가 행한 침묵의 폭력으로 묶여있었던 헨리의 혀가 올바른 영어 발음을 향해 움직이려 발버둥치자 잡음이 뒤섞인 듯한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공기 돌입’이 되어버린 헨리는 정확한 영어 발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나고 영어 발음이 서툴다는 이유로 ‘언어교정 수업’을 들어야 했다. 언어교정 수업은 헨리에게 동급생들의 조롱과 따돌림의 대상의 자리를 확고하게 만든다(351). 이제 헨리의 혀는 더욱 ‘꽝꽝 묶이고, 뻗뻗해지고, 뒷에 걸려 죽어가는 짐승처럼 몸부림친다(349).’ 헨리의 이러한 경험은 ‘언제나 말할 때 끔찍한 실수들을 범할 것’ (349)이라며 영어에 대한 불안한 자의식을 갖게 하고 헨리의 불안한 언어 자의식은 실제로 그가 말할 때 실수를 범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349~350).

말을 할 때 긴장을 하게 되면 ‘언어가 제거’되어 ‘침묵’에 직면하거나 말을 더듬거리게 된다고 질 들뢰즈는 말한다.²¹⁾ 헨리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공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영어로 말을 할 때 실수를 범한다는 것은 질 들뢰즈가 주장한 것처럼

21) 클레어 콜브룩, 백민정 옮김(2004), 질 들뢰즈, 태학사 201쪽.

언어 강박에서 오는 긴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서술자 헨리가 백인들의 언어를 모방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의 목젓을 긴장시키고 긴장한 헨리의 목젓은 부자연스러운 영어 발음을 쏟아 내는 것이다. 헨리는 영어 발음의 문제보다 내적으로 그가 안고 있는 심리적 불안이 모방자로서 영어로 말을 할 때 실수를 범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민세계에 있는 흑인들은 ‘자기 부정’과 ‘자기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데 열등 콤플렉스에 빠진 흑인들은 같은 동족인 흑인들을 ‘폭력’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파농은 이를 일컬어 ‘실존적 변형’이라 한다.²²⁾ 헨리의 아버지가 ‘자기 부정’으로 헨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이제 헨리는 파농이 일컫는 ‘실존적 변형’이 되어 아버지의 영터리 영어를 조롱한다.

한국어에는 L 발음과 R 발음이 구별되지 않는다. 소리는 따로따로이며, 스페인어식으로 현란하게 떨리는 소리나 혀를 꼬부리는 소리가 없다. 우리한테는 B와 V의 구별도 없고, P와 F의 구별도 없다. 나는 늘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런 말들을 발명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경박한(Frivolous), 미개인(Barbarian). 내가 처음으로 대마초를 피웠을 때, 아버지가 나를 노려보며 하던 말이 기억난다. 네 눈이 온통 이끌렸구나(led).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방으로 가서 눈물이 나오도록 웃어 젖혔다(349).

헨리는 동양계 이민 2세이지만, 여전히 영어 발음에 신경을 쓰며 원어민이면서 완전한 원어민이 아닌 자신의 열등감을 같은 동족, 자신보다 영어를 못하는 이민 1세대인 아버지를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 보인다. 아버지가 L 발음과 R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red(빨갳다)를 led(lead의 과거, 과거분사, <앞장서서> 안내하다)로 말하자 헨리 자신을 노려보던 아버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눈물이 나올 지경까지 웃어댄

22) Frantz Fanon(1986). *Black Skin, White Masks*, 6쪽.

다. 또 이민 1세대들의 영어를 듣고 ‘창피한’ ‘영터리 콩글리시’ 나 ‘스팽글리시’ 라고 비판을 하며 그들에게 ‘말 좀 똑바로 해봐’ 라고 마음속으로 소리를 질러 댄다(493). 헨리의 이런 우울감은 소외된 자의 우울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아버지의 영어를 ‘강한 음악’ 이며 ‘아주 끔찍하고 처량한 오페라’ 의 언어라고 (281) 진술한 것은 주류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영어가 권력인 미국 사회에서 같은 동포의 영어를 ‘콩글리시’ ‘스팽글리시’ 라며 분노를 발산하고 아버지의 영어를 조롱하는 헨리,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언어 자의식에 빠져 “나 같은 사람은 혹시 내 억양이 아직도 어색하지 않나? 하고 언제나 신경을 쓰고” (30) 말할 때마다 듣는 이들이 한결같이 “나의 진정한 말, 나의 더 진실한 이야기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272)는 자신이 만들어 낸 언어의 속박으로부터 감금되어 괴로워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헨리는 원어민이지만,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언어 권력 즉, 자신의 언어(영어)로는 원어민이 될 수 없다는 자의식에 빠져 주변으로 밀려나 보이지 않는 존재로 부재의 존재 양식을 취하며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자신의 정체성은 숨기고 타인의 삶을 엿보는 첩자의 길을 선택하여 자신은 미국에서 ‘이방인’ 입을 스스로 확고히 한다(38).

2.3. ‘현실 직시’ 와 ‘자기 인정’ 으로의 ‘탈식민화’

헨리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의 시민권자로 원어민이자 동양계 이민 부모의 아들로 비 원어민으로 정의된다. 즉 헨리는 진정한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그 둘의 틈새 사이에 끼인 채 ‘비존재의 영역’ 에 서 있다.²³⁾ 아버지의 부정(한국문화)이 자신의 부정(정체성

23) Frantz Fanon(1986). *Black Skin, White Masks*, 2쪽. 백인을 자신들의 전형으로 간주하는 흑인들은 자신들을 부정하고 백인들이 주입한 우울(백)/ 열등(흑)의 인종주의 관점을 무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흑인)들의 존재론적 설명은 차단하므로 그들 스스로 ‘비존재의 영역’ 즉, 흑인이라

부재)으로 이어져 ‘비존재의 영역’ 이라는 공간에 갇혀있는 헨리는 자신의 정체성은 부재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주류 사회로의 동화를 위해 호미 바바가 주장한 백인 ‘흉내 내기’ 에 집착한다.²⁴⁾ 하지만 호미 바바와 프란츠 파농이 주장하였듯이 자아가 부정된 흑인은 탈식민화에 이를 수 없다. 탈식민화에 이르고자 한다면 자기 인정(현실 직시)을 통해 자기를 해방(자아의식)하고 자기 결정과 행위자 즉, ‘행위를 하는 존재’ 로 거듭나야만 한다.²⁵⁾

헨리의 백인 아내 릴리아는 이민자 아이들의 언어를 교정해주는 ‘언어 치료사’ 이다(15). 그녀는 남편 헨리가 자신의 목소리(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 ‘흉내 내기’ 를 하고 있다는 것을 헨리와의 첫 만남에서 간파한다.

“아무 말이나 해 보세요.”

“무슨 말을요?”

“내 이름을 말해 보세요.”

“릴리아.” 내가 말했다. “릴리아.”

“들었죠?” 릴-야, 하고 아주 의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안 그러려고 하지만 음절 하나하나를 뜯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신경을 쓰는 거죠(30~31).

헨리가 의식적으로 백인과 같은 발음을 하고자 음절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한다. 헨리의 이러한 태도는 ‘나는 원어민이 아니다’ 라고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릴리아는 말한다(30). 릴리아는 ‘언어 치료사’ 로 영어가 서툰 이민자의 아이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그녀만의 수업방식이 있다. 릴리아의 언어교정 수업은 헨리가 학교에서 경험한 강압적인 것이 아니다. 헨리의 언어교정 선생님 알브레히트

는 정체성이 부재한 영역에 머물게 된다고 프란츠 파농은 주장한다.

24) 호미 바바, 나병철 역(2012),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472쪽.

25) Frantz Fanon(1986). *Black Skin, White Masks*, 173쪽.

부인은 자신의 영어 발음을 제대로 따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학생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351). 다른 20대 초반의 젊은 언어 치료사 선생님은 알브레히트 부인처럼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이민자 아이들에게 손거울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 말을 할 때 입 모양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며 소리의 진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녀의 목에 아이들의 손을 가져다 댔다. 아이들이 이런 행위를 거부하면 그녀는 강제적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아 직접 자신의 목에 대고 뱀파이어 같은 낮고 전율을 일으키는 단어를 말하곤 했다(352). 헨리가 모방자로서 백인 ‘흉내 내기’에 전력 할수 밖에 없었던 것은 가정에서 행해진 헨리의 아버지의 ‘폭력’과 더불어 학교에서 가해진 또 다른 폭력의 결과의 산물이다. 학교에서조차 이민자의 자녀들은 자아는 없고 ‘흉내 내기’만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헨리의 아내 릴리아는 그녀의 언어교정 수업에서 이민자의 아이들에게 어떤 행위로 수업을 진행할까?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불안한 얼굴이 적어도 20개는 있다. 이것은 사실 테이케어의 한 형태, 영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는 방식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우리는 처음 30분 동안은 누가 누구이고, 어느 나라 말을 하는지 파악한다. 모두에게 자기 성과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하게 한다(509).

탈식민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족문화로의 회귀’이다.²⁶⁾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면 ‘비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나 ‘주체’로 거듭날 수 없다. 릴리아는 자신의 언어교정 수업에 참여한 적어도 20명에 이르는 불안한 이민자의 아이들에게 영어보다 우선하여 각각의 이민자 아이들의 모국어로 그

26) 프라모드 K. 네이어, 하상복 옮김(2015), “프란츠 파농 새로운 인간”, 서울: 엘피, 191쪽.

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아이들의 이름과 성을 큰 소리로 말하게 한다. 릴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미국에서 ‘그림자’로 이름 없이 살아가는 객체의 존재에서 명명하여 ‘주체’로 세워주는 과정으로 불안한 이민자 아이들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정확히 일깨워준다. 불안한 얼굴로 교실에 앉아 수업을 기다리던 이민자 아이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를 백인 주체로 표상되는 언어교정 선생님의 인정과 영어로 말을 할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며 ‘영어를 웃음거리로 삼는’(510) 백인 선생님의 행위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희석되고 자신들과 같은 이민자의 자녀들도 미국에서 ‘주체’로 즉 ‘원어민’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이른다.

이제 릴리아는 헨리에게 ‘모방자’에서 ‘행위자’로 거듭나 ‘주체’의 자리를 확보하라 말한다. 헨리가 ‘주체’로 서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헨리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까지 아버지를 증오하였고 침대에 누워 말이 없는 아버지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냉소했다(84~85). 릴리아는 이제 그것들을 ‘해체’하고 아버지(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를 받아들이라 한다.

마침내 어느 날 나는 그 집을 바깥에서, 아버지의 잔디의 한쪽 구석에서 발견한다. 돌들까지 완벽하게 말짱하다. 나는 차고틀, 큰 집을 돌아본다. 창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비밀 방의 조그만 타원형 창문에도, 그러나 나는 그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집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것을 해체한다. 잎과 나뭇가지, 돌과 바위, 마침내 재료들이 단정하게 쌓인다. 나는 일어서서 아이의 이름을 소리쳐 부른다. 나의 미약한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 큰 소리로 다시 소리쳐 부른다. 이어 그것을 모두 숲에 집어 던진다. 조각조각으로 해체한다(371).

헨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증족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고 ‘첩자’로 살아왔다. 하지만 자신을 부정한 헨리는 진정한 원민으로 거듭날 수 없었고 불안한 그의 정체성은 아내 릴리아와의 관계마저 위태롭게 하였다(14). 이제 헨리는 릴리아와의 관계 회복과

자신을 ‘주체’로 미국에서의 진정한 ‘원어민’으로 세우기 위해 아내이자 ‘언어 치료사’인 릴리아의 말에 따라 아버지의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해체’한다. ‘미약하지만 최선의 목소리(자아의식)로 어린 헨리 자신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자기 해방) 부정하던 모든 것을 숲으로 집어 던져 조각조각 해체’하며 ‘행위를 하는 존재’로 거듭나 동양인 이민자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뿌리를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하며 ‘자기 인정’에 이른다.

‘자기 인정’에 이른 헨리는 이제 더는 아버지를 냉소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지 못한다. 창문을 열어 놓고 앉아 오랫동안 교차로를 내려다본다. 반대편 모퉁이에 밤새도록 문을 여는 한국 식품점이 있다. 한인과 남미인 노동자가 바깥의 상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 차는 다니지 않는다. 바람의 방향이 맞으면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 있는 곳까지 들린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려는 그들의 진지한 시도, 그들의 딱딱한 영어 조강에 귀를 기울인다. 어렸을 때라면 그 사람들을 조롱했을 것이다. [...]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말하는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다. 아버지의 언어, 늘 맹렬하게 돌진해 나가는 그 언어의 충돌과 강타와 중단, 나는 이 도시의 거리에서 아버지의 언어를 들어 보려고 언제까지나 귀를 쫓긋거리며 다닐 것이다(493~494).

헨리는 그토록 증오하고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아버지(뿌리)의 거칠고 맹렬한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 아버지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면 이제는 그 어떤 행위라도 할 것 같다는 화자는 이제 ‘비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자아의식’에 이르러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동양인 이민자로 자신의 인격)의 회복에 이른다. 이는 프란츠 파농이 주장한바, ‘민족문화로의 회귀’로 탈식민화의 핵심 바로 그것을 헨리가 행하여 ‘자아’를 확고히 한 것이다. 자아를 찾은 헨리는 언어

의 권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향해 나아가간다.

3. 결론

2021년 1월 3일 제117대 미연방의회 공식 임기가 시작되었다. 미주 한인 이민역사에서 최초로 4명의 재미교포 연방하원의원이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날이기도 하다. 2020년 11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연방하원에 미셸 박, 메릴린 스트릭랜드(순자), 영 김, 앤디 김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어 한인 정치인 4명이 의회에 동반 입성하게 된 것이다. 미셸 박과 영 김은 공화당 소속으로 메릴린과 앤디 김은 민주당 소속의원으로 일을 한다. 한국어가 유창한 재미교포 2세대인 이들은 소속된 당은 달라도 강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소유한 자들로 모두 한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한다.²⁷⁾ 대한민국의 이익과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 한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다.

연방하원인 미셸 박, 영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순자), 앤디 김은 상기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이지만 모두 한국어에 능통한 자로 미국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확고한 자들이다. 이들은 이들이 미국 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듯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당당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 목표라 한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서 진정한 원어민이 되고자 한다면 ‘혼종성’ (두 문화)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로 모국의 문화(뿌리)를 열등의 순위에 놓고 간과(看過)하면 헨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흉내내기’에 급급하여 자신이 목표한 곳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27) 한형석·석인희 기자, “한인 정치력 신장 새로운 도약 원년 만들 것”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 2021-01-01 (금), LA로컬/사회면. <http://www.koreatimes.com/article/1343498> 참조.

헨리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자 미국의 원어민이지만 이민 1세대인 아버지의 ‘자기 분열’ 과 ‘열등 콤플렉스’ 가 헨리에게 여과(濾過)없이 전달되어 헨리로 하여 아버지를 부정케 했다. 아버지의 부정은 곧 헨리의 부정으로 헨리는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두 문화의 틈새에 끼어 ‘비존재의 영역’ 에 자신을 내던졌다. 이러한 헨리의 정체성 혼란은 아내 릴리아와의 관계마저 위태롭게 하였지만, 언어 교정사인 아내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냉소(자기 부정)에서 벗어나(자기 인정) ‘민족문화로의 회귀’ 를 통해 탈식민화에 이르며 ‘정체성’ 을 확고히 하고 ‘행위자’ 로 거듭났다. 결국, 헨리가 그토록 원하던 ‘원어민’ 은 유창한 영어나 정확한 발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올바른 민족 정체성 수립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이 연구는 미국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 한국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까지 단순한 참고 이상의 의의를 지닐 것이다.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다문화 가정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문화 사회에 사는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우월/열등의 이분법을 버리고 이민자들을 동화시키려는 정책에서 벗어나 이질(異質)적인 타문화를 인정함으로써 객체를 ‘주체’ 로 세워 이민자들이 당당한 주류의 일원(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다문화 사회,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다문화 사회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 즉 다문화 사회에서 이민자들의 문화는 배척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에서 건강한 다문화 사회는 출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김희정(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부정적 행동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란(2006).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 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 논문.
- 김영희(1996). 기질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17권 2호, 한국아동학회. 19~32쪽.
- 김진경(2019). 언어의 도시와 이방인들: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연구, <미국소설> 26권 3호, 미국소설학회. 5~28쪽.
- 고부웅(2002). 이창래의 원어민 - 비어있는 기표의 정체성, <영어영문학> 제48권 3호, 한국영어영문학회. 619~638쪽.
- 고영자(199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자아 존중감의 차이,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은숙(2000). 인간 옆보기: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인생 스펙타클로서의 작가, <현대영미소설> 제1권 1호,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47~63쪽.
- 강길호, 김현주(1995).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한나래.
- 박선양(2017). 경계의 디아스포라, 사이공간을 주체화하다-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Native Speaker)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연구> 11권 2호, 전남대학교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 125~160쪽.
- 박홍순(2007). 다문화와 새로운 정체성: 포스트콜로니얼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박성원(2014).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분석에 나타난 언어와 정체성의 결속성 연구, <이중언어학> 54집, 이중언어학회. 123~156쪽.

- 박수정(2002). 누가 네이티브 스피커인가-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인종과 언어의 관계, <효원영어영문학> 제22집. 111~132쪽.
- 박점자(2015). 다문화 가정의 가족 기능이 다문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5권 6호. 한국콘텐츠학회. 247~258쪽.
- 서은경(2017).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민자의 자기 배반의 삶 - 이창래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를 통해서 본 `Korean-American`의 생존방식 탐구, <우리어문연구> 제58권, 우리어문학회. 55~71쪽.
- 심재현(2006).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 고찰; 존 오카다의 노-노 보이와 이창래의 원어민 속에서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민수(2008).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민족 정체성 교육을 위한 민족 교육 모델 연구 - 유대인들의 민족 정체성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NRF).
- 이창래, 정영목 옮김(2015). 영원한 이방인, 알에이치코리아.
- 이연숙(2001). 디아스포라와 국문학, <민족 문학사 연구> 19회, 민족 문학사학회. 55~71쪽.
- 왕 철(1996). 네이티브 스피커에서의 옛보기의 의미, <현대영미소설> 3권 2호,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23~39쪽.
- 임춘금(1995). 부모의 통제유형 및 부모 간 통제유형 일치 여부가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엄주경(1998). 어머니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영의(2017).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에 나타난 혼종적 욕망과 언어권력, <현대소설연구> 67권, 한국현대소설학회. 121~147쪽.

- 정진선(2004). 언어와 문화적 무의식: 이창래의 네이티브스피커 (Native Speaker),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화용(2018). 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유대인 부모처럼, 스타트비지니스.
- 장민희(2020).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에 나타난 ‘서발턴’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28호, 국제한인문학회. 39~70쪽.
- 최재인(2009). 미국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배경, <호모미그란스-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제1호, 이주사학회. 75~96쪽.
- 최상진(2000).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호미바바, 나병철 옮김(2012).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 홍경표(2004). 미주이민 문학의 현황과 전망, <국제한인 문학연구> 창간호, 국제한인 문학회. 231~264쪽.
- 홍익희(2012). 유대인 미국 정착 사. 홍익인간.
- 현용수(2015).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교육, 쉼마, 참조.
- _____ (1999).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부제: 유대인 자녀 교육, 조선일보사, 참조.
- 황진희(1996). New York 시에서의 이태리 이민과 유대 이민의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영숙(2016). *Native Speaker*: 정체성과 언어의 문제, <인문학연구> 20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75~294쪽.
- 네이션 글레이저, 서종남, 최현미 옮김(2009).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클레어 콜브룩, 백민정 옮김(2004). 질 들뢰즈. 태학사.
- 프라모드 K. 네이어, 하상복 옮김(2015). 프란츠 파농 새로운 인간. 서울: 엘피.
- Fanon, Franz, 이석호 옮김(1998). *Black Skin and White Mask*. 서울: 인간 사랑.
- Baldwin, A. L(1955). *Behavior and development in childhood*,

- New York : Holt, Reinhart and Winston.*
- Bernstein, B. A(1971). *Class, codes, and control* (vol. 1): *Theoretical studies towards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p. 73~84.
- Frantz Fanon(1986). *Black Skin, White Masks*, Charles Lam Markmann, trans, London: Phuto press.
- Gordon, T(1975). 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The Tested new way to raise responsible children.*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Rosen, M(1981). *Parental and teacher questionnaire, London:* Longman.
- Lee, Chang-rea(1995). *Native Speaker*, New York: Riverhead Books.
- Mussen, P. H(1974).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child*, New York : Prentice-Hall.
- Simmel, Georg(2016). “*The Stranger.*” *The Baffler* 30.
- Shin, H. S., Han, H. R., & Kim (2007). M. T.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st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A structured interview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4, pp. 415-426.
- Son, S. H., & Morrison, F. J(2010). The nature and impact of changes in home learning environment on development of language and academic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6(5)
- Stuart Hall(1994).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in Patrick Williams and Laura Chrisman, ED,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A R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ttp://www.koreatimes.com/article/1343498> (20201년 2월 11일 검

색)

필자 소개

성 명 : 장민희

소 속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남14길 2-2 [우편번호]51258

전화번호 : 010-2619-3009

전자우편 : mhchang0523@gmail.com

투고일: 2021. 1. 17 / 심사일: 2021. 1. 20 / 심사완료일: 2021. 2. 18